

# 오기 귀머귀의 나무

괴산 절임배추 소동

지난 금요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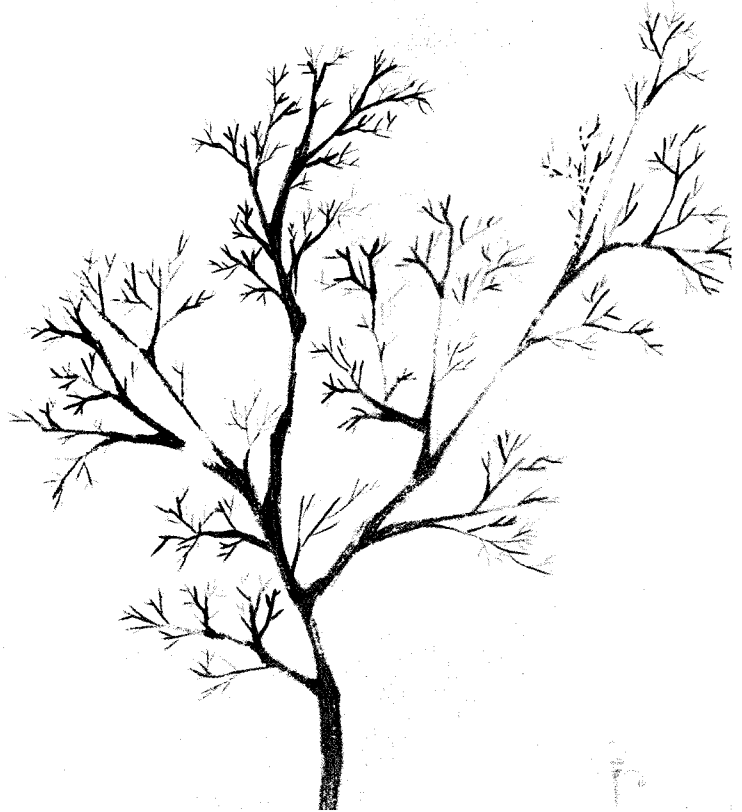
“나 당신 친구 때문에 못살아” 땀에 젖어 늦게 들어오던 신랑 말이다.

“왜? 누구?”

“어린이집 하는 친구 있어?”

“응. 연옥이. 근데 왜?”

이유인즉 친구 연옥이는 벌써부터 우리 집 카페 ‘감물 느티나무장터’의 회원이었던다. 그동안 대학찰옥수수도



주문해서 아이들과 먹었다. 인터넷세상이 실명은 없고 아이디로 들어오니 우리 둘 다 모르고 있었다. 사실 카페 진장이 바쁜 관계로 회원들과 속닥거리며 친밀감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는 게 문제였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배추파동... 지금은 수그리들었지만 네이버 검색순위에 '괴산 절임배추'가 톱이었던 적이 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우리 큰아들도 전화가 왔었다. 늦은 밤에 전화를 해서는 대뜸 "아빠 대박 났어요?"였다. "야임마 배추가 공산품이나? 팍팍 찌어내게?" 밥다 혼구멍을 내주고 한참을 통화했다. 그래도 장남이라고 가정경제에 관심이 있나보다. 녀석도 참.

하여튼 두세 사람만 모여도 배추이야기로 대화가 오가고 연일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니 절임배추 주문메일을 안 보내도 벌써 총생산량 절반의 주문장이 날아 들어왔다. 안되겠다 싶어서 기존 고객들에게 절임배추 주문안내문을 문자로 날렸더니 삼시간에 신랑 손전화는 마비가 되었고, 발 빠른 고객은 주문 전에 입금부터 마치고 꼭 해달라는 간곡한 문자가 날아들었다. 하루도 안 돼 주문이 폭주해서 오후엔 전화를 꺼놓고 카페에는 마감통지를 올렸다.

평소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농산물을 아껴주시던 고객님들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올해 농사도 어렵게 지었으니 당연히 가격을 올려 받아야 한다는 격려의 댓글이 주르륵 달렸다. 간단한 고맙다는 한 마디 문자 한 통에도 찢꺼머리는 게 농부마음이다. 내 자식 같은 농산물이 소비자한테 가서 제대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여름내 흘린 그 땀방울이 고귀하게 느껴진다. 마음만 받아도 부자가 되는 절없는 농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댓글을 올린다.

아~ 정말 무섭다. 사실 우리농산물, 특히나 유기농산물... 그닥 인기 없

우리는 예전처럼 농사를 지을 것이고 배추 한 포기  
무 한 쪽도 함께 나누어 고맙다는  
달콤한 답신을 받을 때마다 이마의 젖은 땀방울을  
닦아내며 또 잔걸음으로 밭으로 달려갈 것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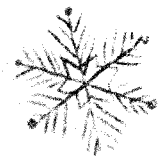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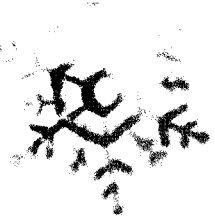
었다. 그동안 이천 명 정도의 소중한 회원으로 우리는 직거래를 해왔었고, 양  
채류는 한살림과 생협으로 일부 출하하기도 했었다.

배추값이 폭등을 하니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다. 배추를 키워서  
처음부터 발매기로 파는 사람들은 예전 가격대로 장사꾼에게 넘겨버린 게 억  
울하고, 시세를 보고 팔아보겠다고 아직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몰려드는 외지  
장사꾼들이 두 배 세 배 값을 주겠다고 달려드니 신이 났다. 가격이 오르면 사  
재기부터 하는 우리네 상거래를 보면서 웃지 못 할 해프닝이라 하기엔 너무나  
씁쓸한 마음을 쓸어내렸다.

이곳 괴산에서뿐 아니라 멀리 해남에서 들려오는 배추소동은 더 마음을 아  
프게 했다. 10년 넘게 유기농을 고집해왔던 농부들이 술렁거리고 있었다. 이참  
에 좋은 값으로 시장에 내다 팔면 그동안 지은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까 고민했다는 지인의 고백에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풍년이 들어도 인건비  
도 못 건지는 농사가 아닌가? 뉴스에서 배추를 갈아엎는 걸 보면 너무나 가슴  
이 아파서 채널을 돌려버린 기억이 멀지 않은데...

배추 값은 몇 배로 올랐지만 우리는 작년가격 그대로 가기로 했다. 그러나  
유기농 절임배추를 관행배추 시장가격의 몇 분의 일로 사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었다. 새로 몰려온 사람들이 계속 남아 우리와 함께 갈지는 모른다. 남  
들이 왔다가 홀연히 가더라도 잡아볼 용기는 없다.

우리는 예전처럼 농사를 지을 것이고 배추 한 포기 무 한 쪽도 함께 나누어  
고맙다는 달콤한 답신을 받을 때마다 이마의 젖은 땀방울을 닦아내며 또 잔걸  
음으로 밭으로 달려갈 것임을...



## 양심적인 먹거리

이런 우여곡절을 마치고 한숨 돌리려는 찰나에 친구의 문자가 날아온 것이다. 그것도 신랑의 손전화로 '배추값 입금했어요. 맛있는 배추 열여덟 박스 부탁드립니다.'... 엄청난 양이다.

친구라 하여 어디 살짝 끼워 넣을 수 있는 양이 아니다. 신랑은 어린이집이라는 말에 '아이고 큰일 났다' 숨을 크게 내쉬었다. 꼭 우리 배추를 먹고야 말겠다는 열성팬들 대기자 100명을 두고 어디로 끼워 넣어야 한단 말인가? 모두가 유기농산물을 먹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은 꼭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둘다 서울을 떠나 농사를 짓는 이유다.

그러자 우리가 김장을 못해도 친구네 열린 어린이집에는 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친구와 오랜만에 통화를 했다. 예전처럼 좋은 배추를 기대하지 말라 했더니 알고 있었다.

친구는 주말농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추를 심어보았고, 올해도 화분에 몇 포기 심어보았지만 잦은 비에 거의 다 녹아내리고 남아 있는 배추도 상추만하다고 오히려 농사짓는 우리부부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했다.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다. 그러니까 25년 전 단발머리로 만나서 키가 비슷해 앞뒤로 앉아 3년을 같이 보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다가 둘이서 다시 만난 건 둘째아이를 가지고 만삭이던 모습으로 보라매병원 같은 선생님의 진료를 받다가였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중 3이다. 우리들도 아줌마가 되었다. 세월이 이만치 지나왔음에도 그대로인 중경고 시절 그때의 추억이 어제 일처럼 밀려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응원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유기농을 먹이는 몇몇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그 중에 내 친구가 있어 더욱 뿌듯하고 자랑하고 싶다.

“당신 친구 괜찮은 사람이네...”

나랑 같이 사는 남자가 하는 말이다.†